전주매일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음 8월 21일) 제23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 양돈농가에서 추가 확진 판정
전북도, 비상방역체계 유지 · 전 시군에 소독시설 설치
방역심의회 열고 논의 결과 도 방역추진에 적극 반영

전북도는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동안 돼지농장 등에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 중 자체 점검반을 구성(5개반, 10명)해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도내 모든 시군에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거점소독시설을 긴급 설치, 모든 축산차량은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전국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돼지농가에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하고, 돼지가 모이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 도축장 내외부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내 방역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분석과 향후 추진 방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했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북도 방역추진에 적극 반영키로 해다.

도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게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금융기관, 인구늘리기 협약식

전북도 도내 금융기관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식이 18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임용택 전북은행장, 유재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등 도내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하나 되는 화합의 한마당

전주시민체육대회, 내달 5일 개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어르신 단체부 신설

전주시민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9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오는 10월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이번 체육대회에는 전주시 35개 동 주민과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등 5000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지난 2012년부터 7년 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실내행사로 치러지던 것을 야외경기장인 전주종합경기장으로 옮기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어르신 단체부(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신설되고, 경기장 주변에 약 60개 부스가 참여하는 문화장터도 개설되고, 시민장기(노래)자랑 코너도 신설된다.

예선전은 오는 30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리며,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은 시민체육대회 당일 오후 2시부터 본선무대에 올라 솜씨를 뽐내게 된다. 또, 행사의 흥을 돋우기 위해 가수 송대관 등 초대가수의 공연도 마련된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시민체육대회가 10월 5일 열리는 것은 전주가 전주읍에서 전주부(시)로 승격한 1930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인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축제로 만들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지역 '스타소상공인' 탄생

왕중왕전 공개오디션

대상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최우수상에 '팬포머' 선정

우리지역 최고의 소상공인이 탄생했다.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전 공개오디션'이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평가단 100명, 전문 심사위원 6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상에는 도소매업종의 '맑은샘 자연교육농원(대표 조금자)', 최우수상에 제조업종의 '(주)팬포머(대표 김통일)'가 최고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손짱(대표 황이슬)', '디자인농부(대표 김요섭)', '우리항공(대표 박선기)'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스타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전북도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이 직접 뽑고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선정된 스타소상공인 44개 업체 중에서 최고를 뽑는 '왕중왕전'이 개최되었다.

대상을 수상한 맑은샘 자연교육농원(대표 조금자)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팬포머(대표 김통일)에게는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 '이 쓰여진 현판과 경영지원금이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주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선정한 스타 소상공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강한 소상공인의 롤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개오디션은 10월 10일 오후 7시 JTV전주방송을 통해 '스타탄생 작은 CEO'라는 이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생산자 · 소비자 모두 행복한 착한 소비 실천

전주시, 전주대 · 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무역 실천 협약

전주시가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활동을 실천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도전한다.

시는 18일 전주대학교 본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전주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정무역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공동협력 △공정무역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행사, 캠페인, 홍보 등 관련 사항 협력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례 연구, 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지원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위 기관 시설의 사용 편의 제공 등이다.

특히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공정무역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5가지 필수 이행조건을 수행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발족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공정무역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해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 보조금도 지원해왔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공정무역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생각을 바꾸면 소비가, 소비가 바뀌면 개인의 일상이, 그 주변이 모두 바뀔 수 있는 만큼 전주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